

# 연합뉴스

## 미디어작가 박찬경, 런던서 개인전

김정선 기자

2015/01/15 16:34

---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미디어 작가이자 영화감독, 큐레이터 등으로 폭넓은 활동을 해 온 박찬경(50)이 영국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고 국제갤러리가 15일 전했다.

개인전은 런던 소재 비영리 전시공간 '이니바 국제미술기관'에서 '파경'이라는 제목으로 3월2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에선 '신도안', '작은 미술사 #1' 등을 포함한 회화, 설치 작품과 그간 다양한 작품활동에 참고한 영상, 책자 자료를 함께 소개한다.

이 중 '신도안'(2007)은 주로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작가가 전통, 종교, 공동체로 시야를 넓힌 대표작이라고 국제갤러리는 설명했다.



작가 박찬경. <국제갤러리 사진 제공>

박찬경은 2013년 영화 '만신'을 포함해 영상작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도 활동했다.

전시 제목(파경, 罷經)은 굿판의 마지막 순서로 이름 없는 영혼, 위로받지 못한 잡귀를 모두 불러모아 위로하고 먹여 보내는 의식을 뜻한다고 국제갤러리는 부연했다.

국제갤러리는 소속 작가인 박찬경의 이번 전시로 "관람객이 작품활동 결과뿐만 아니라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이면의 작가의 사적인 생각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가 열리는 이니바 국제미술기관은 영국 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곳으로, 영국 주요 작가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박찬욱 감독의 동생인 박찬경은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4),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2011),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대상(2011) 등을 수상한 바 있다.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URL: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5/01/15/0901000000AKR20150115153000005.HTML>